

특수동물 보호자를 위한 응급상황 체크리스트

파충류·조류·양서류·소동물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,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리했어요. 이 체크리스트는 진단이 아닌 1차 참고용 관찰 가이드입니다.

응급 시 가장 먼저 할 3가지

① 침착하게 관찰·기록

증상이 시작된 시점, 최근 식사·배변 시간을 메모해두면 진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.

② 무리하게 만지거나 억지로 처치하지 않기

억지로 먹이거나, 붙은 허물을 잡아 떼거나, 힘을 주어 짜내는 행동은 오히려 상처나 손상을 키울 수 있어요.

③ 진료 가능 병원 확인 후 이동

방문 전 해당 병원이 우리 아이 종을 실제로 진료하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.

즉시 병원 가야 하는 신호

파충류

- 빠가 휘어 보이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못 걸음
- 발가락이 붓거나 색이 변함, 탈피가 2~3일 넘게 그대로 임
- 배가 단단하게 부었는데 2~3일 이상 배변이 없음
- 눈을 계속 못 뜨고 먹이를 거부, 진물·호흡곤란 동반, 또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무기력·설사/혈변이 함께 나타남

조류

- 깃털 뽑은 자리에 상처·출혈·진물, 짧은 기간에 급격히 심해짐(식욕부진·활동량 감소 동반)
- 총배설강 주변이 부풀고 꼬리를 반복해서 흔들며 힘주는 자세, 호흡이 가빠지거나 입 벌리고 숨쉴(특히 12시간 이상 지속 시 응급)
- 입양 직후 3일 이상 거의 안 먹음, 꼬리를 펌핑하며 숨쉬거나 눈을 계속 감고 있음

양서류

- 배·다리 안쪽에 붉은 반점이 있고 하루이틀 새 빠르게 넓어짐(붉은다리병 의심)
- 피부에 진물이 있거나 하얀 솜털 같은 것이 붙어있음(진균 감염 의심)
-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짐, 또는 사육장을 새로 세팅한 직후에도 피부 이상이 나타남

소동물

- [토끼] 6~8시간 이상 배변이 없거나 전혀 안 먹음
- [햄스터] 볼주머니가 붓고 축축한 조직으로 뒤집혀 나옴(즉시), 또는 하루 이상 안 비워지고 만지면 심하게 아파함
- [고슴도치] 몇 시간이 지나도 몸이 안 풀리거나 비틀거림·경련, 식욕부진이 함께 나타남

병원 가는 중 이렇게 해주세요

- 파충류·양서류는 평소 사육장 온도와 비슷하게 유지 — 겨울철 핫팩은 수건으로 감싸 이동장 한쪽에, 아이가 직접 닿지 않게
- 조류는 이동장에 얇은 천을 덮어 어둡고 조용하게
- 소동물은 담요·수건으로 감싸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
-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와 몸을 숨길 은신처를 함께 넣기
- 핫팩·아이스팩은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(저온 화상·급격한 냉각 모두 위험)
- 흔들림·소음 최소화, 차 안에 잠깐이라도 혼자 방치하지 않기(여름철 특히 위험)

이 체크리스트는 특수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고 병원 방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며, 수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 이상 신호가 보이면 자가 처치를 시도하기보다 특수동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바로 연락하세요.

[검증된 특수동물 병원 찾기 →](#) [펫스캔 AI로 무료 스캔하기 →](#)



이 체크리스트는 펫스캔 AI(petscanai.net)에서 제공합니다. QR을 스캔하면 AI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